

자유 영혼... 서점가 '에르노 특수'



작가 아니에르노



올해 노벨문학상... 여성·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 목소리 높여 '단순한 열정' 교보문고 등 일간 종합베스트셀러 상위권 랭크

'직접 체험하지 않는 글은 쓰지 않는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니 에르노(82)는 이색적인 작가다. 아니 특별한 작가다. 자신이 체험한 것 외에는 결코 쓰지 않는 작가로 유명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전적 소설이 많다. 자전적 소설은 소재를 있는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서사적 장치에 따라 기술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체험이 소설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며 도발적일 수밖에 없다.

◇ 에르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삶

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에르노는 자전적이며 사회적인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문학 출판계 일각에서는 그를 가리켜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별칭이 말해주듯 에르노는 어떠한 억압과 굴레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쓰는 작가다.

에르노는 자신이 용감하기 때문이 아닌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을 쓴다고 강조해왔다. "여성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940년 출생한 작가는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빈곤과 기억은 후일 작가의 작품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에르노는 이후 루앙대학교를 졸업하

고 중등학교에서 교사를 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문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74년 자전적 소설 '빈 옷장'으로 문단에 나왔고 1984년 '자리'로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리'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다. 작가는 부친의 죽음을 계기로 소설을 쓰려다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담백하게 진술하는 방식을 택한다.

에르노 특유의 짧은 단문, 문단과 문단의 역백은 이 작품을 계기로 형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표작 '단순한 열정'은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사랑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글쓰기의 방식, 기억과 기록의 경계 등을 천착하며,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인물들을 조감한다. 지난 2020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돼 칸영화제에 진출하기도 했다.

특히 작가는 발표할 작품을 쓰는 동시에 '내면 일기'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내면적 글쓰기를 동시에 풀어낸다. 자기 검열을 비롯해 다양한 검열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열정'은 이후 '탐닉'이라는 제목으로 독자들과 만났다. 그러나 종종 에르노의 작품은 선정

적이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카사노바 호텔'은 작가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 에로스(사랑)와 죽음의 본능을 밀도있게 그린 작품이다. 성적인 모험 그리고 성적 욕망, 삶의 본능 등을 다루고 있다.

◇ 노벨상 수상 서점가 특수, 이벤트도

에르노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서점가와 출판계가 노벨상 특수를 누리고 있다.

교보문고 온라인 일간 종합 베스트셀러에 따르면 10일 기준 에르노의 대표작인 '단순한 열정'이 6위에 올랐다. 수상 소식 하루만에 1200권 이상이 판매되며 노벨상 작가라는 명성을 확인시켰다.

교보문고에서는 2022노벨문학상 특별전을 오는 12월 5일까지 연다. 행사도서를 포함해 소설, 시, 에세이 분야 등에서 2만원 이상 구매시 데스크 매트 & 펜트레이블 제공한다.

에스24에서도 '단순한 열정'은 10일 기준 베스트셀러 11위를 차지했다. 에스24에서도 노벨문학상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대 수상작가 도서를 포함, 소설이나 시 3만원 이상 구매시 '마블패턴 아코디언 책꽂이', '코듀로이 미니 크로스백'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대구시립미술관(이하 대구미술관)은 '작지만 강한 미술관'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개최한 쿠사마 야요이전 덕분에이다. 당시 약 3개월간 열린이 전시회는 관람객 33만명이 다녀가는 대기록을 세웠다. 유료 입장객은 25만4527명으로 입장료 수입만 10억 2700만 원에 달했다. 블루버스터전의 성공케이스로 불리는 제주도립미술관 '나의 사갈, 당시의 피카소전'(2013년)의 7만 명, 서울시립미술관 '팀버튼전'(2012년)의 46만 명과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사실, 대구미술관은 개관 당시만 해도 별다른

입장하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특히 쿠사마 야요이전은 '컬리티 높은' 전시는 지방미술관이여도 얼마든지 '통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실제로 대구미술관은 2015년 누적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개관한지 불과 4년만에 말이다. 이 기록은 당시 대구 인구(230만8천362명)와 서울 인구(1천10만3천233명)를 감안하면 인구 대비 관람률이 11.7%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0.7%,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7%보다 높았다.

문화의 계절,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

도립미술관의 '담대한 도전'

'존재감'이 없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국립미술관이지만 소장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미술관을 방문한 일부 시민은 "처음이자 마지막 관람이 될 것" 같다는 쓴소리로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이외의 방문객 유치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개관 3년 만에 위치한 쿠사마 야요이전은 단숨에 대구미술관을 '핫플레이스'로 변신시켰다. 노란색 바탕에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노란 호박'으로 유명한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의 전시를 지방에서, 그것도 개관 3년된 신생 미술관이 개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미술계의 '빅 뉴스'였다. 작가의 대표작들과 홍보 마케팅이 맞물려 쿠사마 야요이 전시는 개막과 동시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급속히 퍼지면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림을 관람하기 위해

이하 도립미술관)에서도 국내 미술계의 문화지형을 바꿀 명품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2023년 1월29일까지)'으로, 프랑스가 낳은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의 유화·판화 200여 점 등 불멸의 명작이 선보인다. 프랑스 국립퐁피두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지역미술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역대 최고 수준의 매머드전시다.

무엇보다 인간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송고한 인간애를 추구한 루오의 예술혼은 갈들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개관한 신생미술관이 이뤄낸 담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립미술관이 이번 루오전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구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문화·여행 담당국장, 선임기자>

광주 역사적 공간 답사 '인문 투어'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인문투어 인문반딧불이

14·21·28일, 광주·사직공원 등

위에 열거한 장소들은 숨겨진 광주의 이야기를 품은 곳이다. 각각의 공간들은 다양한 이야기와 개인의 서사가 맞물린 곳으로 어떤 이에게는 추억을 또는 어떤 이에게는 아픈 기억을 환기한다.

광주 곳곳에 자리한 역사적 공간을 답사하며 인문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는 인문체험 프로그램 '인문투어 인문반딧불이'를 14일·21일·28일 진행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도시철도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펼쳐진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오후 2시부터 광주공원이 품고 있는 풍부한 광주 이야기와 광주전, 옛시민회관, 신사터, 호남의병과 심남일, 성거사지5층 석탑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21일은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양파정을 비롯해 정추와 정율성 등의 삶 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아울러 관덕정, 시인의 동산과 이수복, 사직전망대, 옛 사직수영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28일은 옛국군광주병원, 화답사, 가톨릭병영교육원, 옛505보안대, 일제 방공호가 탐방 코스다.

전문해설사 김향순 외 1명이 모든 프로그램 과정에 함께하며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맥



사직공원 전망타워

락, 기록과 기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인문투어는 지하철을 타고 진행하며 정류장 주변으로 도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참여자에게는 교통카드 5000원권이 제공된다. 문의 062-530-0621. /박성천 기자 skypark@

일반부 김은총·청소년부 전유민·마을이야기 부문 송주찬

광주서구문화원 백일장 대회 시상

2022 광주서구문화원의 백일장 대회에서 글쓰기 부문에 일반부 김은총, 청소년부 전유민, 마을이야기 부문 송주찬 등이 부문별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백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축제 현장에서 열려 열기를 더했다. 이번 백일장 대회는 광주 서구청이 주최하고 서구문화원이 주관했다.

광주서구문화원은 지난 10일 영산강 서창들녘 역사축제 현장에서 제12회 빛고을문예백일장 시상식을 갖고 부문별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대상인 글쓰기 일반부에 김은총 씨의 '영원한 순간들 속의 자연처럼', 글쓰기 청소년부에 광주 송원중 전유민 학생의 '물의 순환', 마을이야기 부문 송

주찬 씨의 '은혜 깊은 용'이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글쓰기 일반부 장현권 씨, 글쓰기 청소년부 최윤 군, 마을이야기 부문에 이광호 씨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 장려상에 대해서도 수상작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백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나눠 펼쳐졌으며 서구마을이야기 부문은 사전 접수, 글쓰기 부문은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됐다.

글쓰기 부문 김은총은 대회 당일 '물', '숲'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발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